

# 심층분석보고서

IBK기업은행-디지털/IT

2026.04.26

### 1장: 산업(섹터) 분석

#### 1-1. 4계층 한국 은행 시장의 분화 구조

국내 은행 산업은 시중은행 5사(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국책 및 특수은행(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Sh수협), 지방은행(BNK, DGB, 광주, 전북, JB, 제주)의 네 계열로 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부는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을 공식화하였고,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롯한 정책금융 재편 논의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의 핵심 변수는 디지털 채널의 주류화와 정책금융 비중 확대라는 두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 두 흐름은 IBK기업은행의 사업 모델 그 자체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동합니다. 종래의 영업점 우위 모델이 빠르게 위축되었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생산적 금융 강조 정책으로 인해 중기와 소상공인 자금 공급 책임이 정부 정책 방향과 강하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 1-2. 시장 규모와 수익 구조의 재편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4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하였으며, 그중 시중은행이 12조 6,000억 원, 특수은행이 6조 9,000억 원, 지방은행이 1조 원, 인터넷은행이 6,000억 원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차이익은 29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하면서 정체 양상을 보인 반면 비이자이익은 5조 2,000억 원으로 53.1%나 급증하였습니다. NIM(순이자마진)은 1.51%로 7bp 하락하였고, ROA는 0.7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 합산 2025년 순이익은 18조 2,000억 원대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KB금융 5조 8,400억 원, 신한금융 4조 9,700억 원, 하나금융 4조 원, 우리금융 3조 7,500억 원의 분포가 확인됩니다. 가치사슬 측면에서는 이차이익 의존도를 비이자(자산관리, 투자금융, 결제, 플랫폼 수수료)로 옮기는 과제가 모든 플레이어의 공통 화두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IBK기업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적 압력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시중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도 동시에 인력 구조조정과 점포 재편을 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표면 수치 이면에 비용 구조 압박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1-3. 디지털 채널의 주류화와 슈퍼앱 경쟁

한국은행 통계상 2025년 1분기 인터넷뱅킹 입출금 비중은 83.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5대 시중은행 모바일 앱 MAU(월간 활성 사용자)는 KB스타뱅킹이 1,416만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신한 SOL뱅크 1,030만, 우리WON뱅크 728만, 하나원큐 621만의 순으로 분포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토스 1,910만, 카카오뱅크 1,874만, 케이뱅크 400만대 수준으로, 토스와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 1위인 KB스타뱅킹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트래픽을 확보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2025년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각각 2,637억 원, 842억 원, 404억 원)을 동시에 기록하면서 종래의 채널 경쟁자에서 수익성 자체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슈퍼앱 경쟁의 본질은 앱 다운로드 수가 아니라 일상 결제, 자산관리, 보험, 증권을 하나의 진입점으로 통합하여 고객의 주거래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IBK기업은행의 i-ONE Bank 리빌딩 의사결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슈퍼앱 경쟁이 격화될수록 트래픽 우위가 곧 데이터 우위로 환산되고, 데이터 우위는 다시 AI 모델의 정확도 우위로 이어지는 양의 되먹임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1-4. 망분리 완화와 마이데이터 — 규제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

##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디지털/IT

2024년 8월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1단계로 생성형 AI와 SaaS 활용 허용, 2단계로 정규 제도화, 3단계로 디지털금융보안법 제정의 단계적 일정을 예고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0일 SaaS 망분리 예외 시행세칙이 사전예고되면서 금융권 디지털 도구 도입의 제약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김병환 전 금융위원장은 현행 망분리를 "갈라파고스 규제"로 규정하면서 글로벌 표준에서 이탈한 한국 금융 디지털 환경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금융 AI 시장 규모는 2021년 6,000억 원 수준에서 2026년 3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연평균 38.2%의 성장률이 추정되며,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의무 비중 30% 등의 규제는 그 자체로 새로운 사업기회의 트리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2026년 1월 26일 법인사업자 대상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이는 규제 환경 변화를 기회로 활용한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망분리 완화는 동시에 보안 위험을 끌어올리는 양면적 변화이며, 디지털 사업자가 새로운 도구를 도입할 때마다 보안성 심의와 CISO 승인 절차가 강화되는 흐름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 1-5. 글로벌 디지털 뱅킹의 구조적 흐름

McKinsey Global Banking Annual Review 2025는 생성형 AI가 향후 10년간 글로벌 은행 이익 풀의 9%(약 1,700억 달러)를 잠식할 위험이 있는 동시에, AI 선도 은행은 ROTE(유형자기자본수익률)를 4%p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양면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임베디드 금융 시장 규모는 2024년 1,048억 달러에서 2034년 8,340억 달러로 연 23%의 폭발적 성장이 전망되며, 핀테크 매출은 2025년 6,500억 달러(전체 금융의 4%)에서 2030년 2조 달러로 확장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의 본질은 "AI 정밀화(precision)"와 "고객 접점의 비은행화(임베디드)"가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이며, 이는 IBK기업은행이 추진하는 BOX 플랫폼과 IBK GPT 전략의 큰 그림과 부합합니다. 동시에 글로벌 빅테크와 핀테크는 결제 영역에 머물지 않고 여신, 자산 관리, 보험, 환전, 무역금융까지 침투하면서 전통 은행의 핵심 수익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남미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은행이 처음부터 임베디드 금융 형태로 출시되어 빠르게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 시장도 핀테크 사업자와 빅테크의 금융 침투가 본격화될 경우 동일한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1-6. 중소기업 금융 시장 — IBK의 본진

5대 시중은행의 중기대출 잔액은 2025년 9월 말 기준 671조 원, 4대 시중은행 합산은 553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IBK기업은행 단독으로 261조 9,000억 원을 보유하여 4대 은행 합계의 약 47%에 해당하는 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압도적 규모의 우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시중은행 또한 정책 압박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중기 영역으로 회귀하고 있어, IBK의 24.4% 점유율은 절대 우위에 해당하지만 마진 압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금융 시장의 또 다른 특성은 정보 비대칭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는 가공되지 않은 정보가 많고, 매출채권 회수 위험과 경영자 리스크가 상장사 대비 훨씬 크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와 모니터링 역량이 곧 사업 경쟁력으로 환산됩니다. IBK가 추진하는 BOX 플랫폼, AI 신기술평가시스템, 미래성장모형은 모두 이 정보 비대칭을 데이터로 메우려는 시도이며, 디지털·IT 직군이 이러한 구조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기 보증부 정책자금 확대와 ESG 연계 자금 공급도 같은 방향성을 강화하는 변수로 작동합니다.

### 1-7. 산업의 구조적 시사점

이상의 흐름을 종합하면 한국 은행 산업은 이자이익 정체와 비이자이익 폭증의 구조 재편, 슈퍼앱과 임베디드 금융이 만드는 채널 혁명, 망분리 완화로 가능해진 AI 활용 본격화, 중소기업 정보 비대칭의 데이터 기반 해소라는 네 갈래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이 네 갈래의 변화 모두에서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그중 중기 정보 비대칭 해소 영역에서는 가장 큰 데이터 자산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우위를

##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디지털/IT

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슈퍼앱 채널 경쟁에서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대비 후발주자 위치에 있으며, 이 격차를 데이터 우위와 정책금융 차별성으로 메우는 것이 향후 5년간 핵심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산업 차원에서 디지털 사업자의 인력 수요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AI 모델 운영, 정보보안, 클라우드 영역에서의 인력 수요가 두드러지는 양상입니다.

###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 2-1. 시중은행 4사의 그룹별 전략 선택

KB금융지주는 2025년 순이익 5조 8,400억 원을 기록하면서 1위 자리를 굳혔고, KB스타뱅크의 1,416만 MAU와 5조 원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No.1 슈퍼앱"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4조 9,700억 원의 순이익과 SOL뱅크 1,030만 MAU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과 증권을 포함한 다각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통합 UX를 강화하면서 자산관리 플랫폼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4조 원 순이익으로 첫 4조 돌파를 달성하였으며, 외환과 기업금융 전통 강자의 지위에 더하여 연금 시장 1위 포지션을 발판으로 자산관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조 7,500억 원의 순이익과 11.05%의 ROE로 효율성 1위를 기록하였고, 비은행 부문 M&A를 본격화하여 증권과 보험 라인업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채널 경쟁은 MAU 절대 규모(KB), UX 통합 혁신(신한 SOL), 올원뱅크 통합 운영(NH)이라는 세 갈래의 전략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시중은행 4사의 자원 동원력은 IBK기업은행이 디지털 영역에서 직면하는 경쟁의 강도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4대 시중은행 합산 IT 투자 예산은 연간 수조 원에 달하며, IBK 단일 사업자의 IT 예산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모이기에 동일한 영역에서 정면 충돌하는 전략은 자원 배분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 2-2. 인터넷전문은행 — 비대칭 위협의 진화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중저신용자 신규 비중 38~50%를 기록하면서 종래 은행이 회피해온 세그먼트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으며, 누적 공급액은 카카오뱅크 13조 원, 토스뱅크 9조 6,000억 원, 케이뱅크 7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토스뱅크의 MAU는 1,910만 명으로 KB스타뱅크를 능가하는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2025년 상반기 순이익 2,637억 원을 기록하면서 일부 지방은행을 추월하는 수익성을 시험하였습니다. 종래 시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인 부문에 한정된 위협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추세는 사뭇 다릅니다. 개인 부문에서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격차가 좁혀진 가운데,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SME(중소기업) 영역으로의 침투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IBK기업은행이 가진 가장 큰 디지털 위협 요인으로 분류됩니다. 토스나 카카오뱅크는 데이터 분석과 모바일 UX 측면에서 시중은행을 앞서고 있고, 동일한 자원을 SME 영역에 투입할 경우 IBK가 누려온 정책금융 우위만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국면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비용과 인력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동일 규모의 대출 자산에서 더 낮은 단위 비용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 구조 우위가 향후 SME 시장 가격 경쟁의 핵심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3. 국책은행 3사의 분업 구조

KDB산업은행은 대내 정책금융(구조조정과 산업금융)을 담당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 정책금융(수출과 해외 PF)을 책임지며,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트라이앵글 구조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통합론은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 거론되었으나 모두 무산되었으며, 그 사이에서 IBK기업은행은 유일하게 KOSPI에 상장된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시장규율과 정책기능의 이중 정체성을 갖습니다. 동시에 시중은행과 동일한 BIS 규제, 자본 적정성 규제, 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정책 의무와 시

##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디지털/IT

장 경쟁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른 두 국책은행이 도매 금융 중심이라면 IBK는 전국 730여 개 영업점 네트워크와 정책 자금조달을 결합한 소매-정책 하이브리드 모델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차별성은 디지털 전략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며,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보다 훨씬 광범위한 채널 디지털화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요구됩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도매 영역이기에 ERP 통합과 트레이딩 시스템이 IT 수요의 핵심이지만, IBK는 730여 개 지점의 채널 운영,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서비스, AI 챗봇과 음성봇 등 소매 영역의 IT 수요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 2-4. IBK의 4가지 차별화 포지셔닝

첫째,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 24.4%(2025년 말 기준 사상 최고치)는 비은행을 포함하여도 압도적 1위를 의미하며, 단일 사업자가 단일 시장에서 이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한 사례는 한국 금융권에서 드뭅니다. 둘째, 「기업은행법」에 근거한 정책금융 사업자라는 지위는 정부 보증부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여 시중은행보다 낮은 조달 비용을 확보하는 구조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셋째, 글로벌 13개국 네트워크는 시중은행과 다른 차원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동반자라는 콘셉트로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폴란드 4개 법인과 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2025년 12월 19일 출범한 「IBK Bank Polska」는 한국계 은행 최초의 폴란드 본인가 사례이자, 동유럽 EU 시장 진출 거점으로서 중기 동반 진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포지셔닝은 시중은행이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자산이며, 디지털과 IT 전략이 이 네 자산을 데이터와 플랫폼으로 다시 풀어내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정책금융 사업자의 지위는 자금조달 우위 뿐 아니라 정부 정책 의제와 연동된 데이터 접근권으로도 환산되며, 이는 다른 사업자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 2-5. 디지털 채널 경쟁 속 IBK i-ONE Bank의 위치

IBK기업은행은 i-ONE Bank 라인업을 개인용, 기업용, 미니, 그리고 외국인 대상 Global(15개 언어 지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MAU 절대 규모는 시중 4사 대비 열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IBK가 SME 중심으로 사업 모델이 형성된 결과 개인 고객 트래픽 자체가 시중은행보다 작다는 본질적 한계와 연관됩니다. 다만 2025년 4월 385억 원 규모의 「디지털뱅킹 리빌딩 1단계」 사업을 발주하면서 1단계 12개월, 2단계 18개월, 3단계 16개월의 3년 로드맵을 가동하였고, 법인사업자 대상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2026년 1월 26일)하였으며, AI 음성봇 「IBK바로」에 은행권 최초로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등 B2B(중소기업) 디지털 차별화 전략을 뚜렷이 했습니다. IBK는 시중은행의 슈퍼앱 경쟁에 정면으로 뛰어들기보다 중기 사업주의 일상 업무를 디지털로 재구성하는 차별 경로를 선택하였고, BOX 플랫폼과 i-ONE Bank 기업용이 그 양 갈래의 무기에 해당합니다. 향후 i-ONE Bank Global 앱은 한국 거주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시장을 겨냥한 잠재 트래픽 확보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중은행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영역을 선점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 2-6. 최근 6개월 주요 이슈 타임라인

2025년 11월 20일 폴란드법인 본인가 획득에서 시작하여, 12월 2일 모험자본 2조 5,000억 원 공급 발표, 12월 19일 IBK Bank Polska 공식 출범, 2026년 1월 22일 장민영 행장 내정, 1월 26일 법인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국무총리 표창), 2월 5일 2025년 연간 실적 발표, 2월 13일 노사 임금 합의, 2월 20일 28대 행장 취임, 3월 23일 AI 신기술평가시스템 가동, 4월 21일 조직개편 컨설팅 발주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보여주는 본질은 "리스크 정리(부당대출, 노사 갈등)와 정책금융, AI 양대 기둥의 가속"이라는 두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4월 21일 조직개편 컨설팅 발주는 하반기 IBK 조직의 모습이 큰 폭으로 달라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이며, AX(AI Transformation)와 생산적 금융 두 전략 기둥에 맞추어 본부와 그룹 단위까지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폴란드법인의 출범과 모험자본 2조 5,000억 원 공급은 글로벌과 정책금융 두 영역의 가속

##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디지털/IT

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벤트이며, 이는 디지털과 IT 직군에 글로벌 시스템 통합과 정책자금 집행 시스템 고도화라는 두 갈래의 신규 업무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 2-7. 포지셔닝의 통합적 시사점

IBK기업은행은 시중 4사처럼 종합 슈퍼앱 1위를 노리는 사업자가 아니며,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처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로 출발한 사업자도 아닙니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처럼 도매 정책금융에 한정된 사업자도 아닙니다. IBK의 고유한 위치는 "전국 영업점 네트워크 + 24.4% 중기대출 점유율 + 글로벌 13개국 + 상장된 국책은행"이라는 네 가지 자산이 결합된 결과이며, 이 네 자산을 디지털과 데이터로 다시 결합하는 전환이 향후 5년간 IBK의 핵심 경쟁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디지털 채널 트래픽에서 후발주자이지만, 중기 데이터 자산과 정책금융 차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추격하기 어려운 비대칭 우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비교하면 신기술 도입 속도에서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자본력, 글로벌 네트워크, 정부 신뢰도 측면에서 비교 불가능한 우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종합적 포지셔닝은 IBK 디지털과 IT 전략을 슈퍼앱 추격형이 아닌 SME 데이터 플랫폼 차별형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 3-1. 사업 구조와 수익 포트폴리오

2025년 연결 기준 IBK기업은행의 이자이익은 7조 7,4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비이자이익은 8,161억 원으로 무려 237.1% 폭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3조 6,600억 원으로 1.7% 증가하였고, 이러한 비이자이익의 폭발적 증가가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한 결정적 요인입니다. 자산 측면에서는 중소기업대출 261조 9,000억 원(전년 대비 5.9% 증가)이 자산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개인 금융, 자산관리, 글로벌, 투자금융이 보조적 역할을 합니다. 자회사로는 IBK캐피탈(2025년 순익 2,456억 원으로 역대 최대), IBK투자증권(575억 원, 20.5% 증가), IBK저축은행,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시스템(SI 자회사), IBK신용정보가 있으며, 자회사 합산 이익이 비은행 이익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디스커버리펀드 80% 배상 결정과 관련하여 IBK투자증권이 함께 거론되는 이유도 이러한 그룹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룹 관점에서 IBK는 단일 은행이 아닌 중기 특화 금융지주에 가까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회사 간 시스템 통합과 데이터 공유 영역이 디지털 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3-2. 재무 건전성과 자본 — 양면적 신호

2025년 말 BIS 비율은 14.88%로 안정 수준에 있으며, NPL 비율은 1.28%로 6bp 하락하였고, 대손비용률은 0.47%로 1bp 하락하였습니다. 표면 지표만 놓고 보면 안정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고 신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연체율은 0.89%에서 1.00%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이는 시중은행 평균 0.45%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3분기 무수익여신 잔액은 1조 8,500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40.5% 증가하면서 자산 질에 경고등이 켜졌고, 6,000억 원 규모 부실채권 매각이 병행되었습니다. 자본 측면에서 가장 큰 제약은 CET1(보통주자본비율)이 12% 미만이라는 점으로, 분리과세 요건(연결 배당성향 40%)을 충족하지 못해 배당 매력도와 자본 정책의 자유도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유안타증권 2026년 1월 19일 분석이 있습니다. IBK는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자본 확충과 배당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미묘한 국면에 있으며, 이는 디지털 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디지털 투자가 대규모 일회성 자본 지출을 동반하는 경우 CET1 비율에 추가 압력을 가할 수 있기에, 클라우드 전환과 같은 OPEX(운영비용) 형태의 디지털 투자가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3-3. 장민영 회장 체제의 전략 — 「30-300」과 「AX」

2026년 2월 20일 취임한 장민영 제28대 은행장은 35년간 IBK에 재직한 IBK 출신 중에서도 자산운용 대표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리스크 관리 전문가입니다. 핵심 비전은 「IBK형 생산적 금융 30-300 프로젝트」와 「AI 기반 금융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30-300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는 청사진으로, 중기와 소상공인에 250조 원, 벤처와 인프라에 20조 원, 신뢰금융에 3조 3,000억 원을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AI 기반 금융기업으로의 전환은 IBK가 보유한 방대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AI와 결합하여 분석, 심사,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초개인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구상이며, 취임사에서 장 행장이 명시적으로 언급한 키워드입니다. 4월 21일 발주된 6주 일정의 조직개편 컨설팅은 AX와 생산적 금융 두 기둥을 중심으로 하반기 조직을 재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며, 디지털과 IT 직군이 향후 인사 및 자원 배분에서 우대권에 진입한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장 행장의 자산운용 대표 이력은 모험자본 공급 의제와 결합되면서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의 결합 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4. 디지털 전략의 4가지 갈래

첫째, i-ONE Bank의 슈퍼앱화입니다. 385억 원 규모의 3개년 리빌딩 사업이 2025년 4월 발주되었으며, 외국인 전용 Global 앱은 15개 언어를 지원하면서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둘째, BOX(Business Operation eXpert) 플랫폼입니다. 대출통로BOX, BOX POS, 장부자금관리, 기업홍보관, 비즈톡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전용 비즈니스 플랫폼이며, 대출통로BOX는 출시 5개월 만에 신청 2만 건을 돌파하면서 SME 디지털 채널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AI와 데이터 영역입니다. 자체 개발한 「IBK GPT」는 여신 심사, 문서 요약, 번역 등에 RAG(검색 증강 생성)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AI 음성봇 「IBK바로」는 은행권 최초로 생성형 AI를 탑재하였습니다. 「상담지원AI」와 2026년 3월 23일 가동된 AI 신기술평가시스템(빅데이터와 미래성장모형 결합)은 금융위 TCB(기술신용평가)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외부 검증을 받았습니다. 넷째,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입니다. 5개년 로드맵에 따라 2025년 하남 IDC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클라우드 MSP를 외부 사업자에서 자회사 IBK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보안과 자체 운영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 Neurocloud 기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이 진행 중이며, 이는 한국 금융권 클라우드 전략의 대표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갈래의 디지털 전략은 슈퍼앱과 SME 플랫폼, AI 모델과 인프라가 결합된 입체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어느 한 영역에 인력이 편중되기보다 네 영역 모두에서 균형 있는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 3-5. 글로벌·ESG·정책금융 차별점

IBK기업은행은 중국유한공사, 인도네시아, 미얀마, 폴란드 4개 법인과 뉴욕, 도쿄, 홍콩, 런던, 호치민, 하노이, 뉴델리, 마닐라, 프놈펜의 9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13개국에 거점을 둔 한국 금융권 내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ESG 측면에서는 국내 정책금융기관 최초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인증을 획득하였고, CDP 2024 평가에서 Leadership A를 3년 연속 받았으며, OECD 지속가능 중기금융 플랫폼 공동의장사로 활동하고 있고,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에 편입되었으며 여성관리자 비율 35.4%를 달성하였습니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는 30-300 프로젝트를 통한 300조 원 자금 공급 청사진과 함께, 2025년 모험자본 2조 5,000억 원 공급 발표 등 정부 정책 의제와 연동된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ESG, 정책 영역의 차별성은 IBK가 단일한 상업은행의 정체성에 머물지 않고, 한국 경제의 산업 정책과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의제를 동시에 책임지는 복합 사업자임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동시에 IT 시스템 통합 부담을 만드는 영역이기도 하며, 13개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코어뱅킹 통합과 외환 시스템 운영이 디지털 전략의 숨은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3-6. 리스크 — 4가지 균열선

첫째, 882억 원 부당대출 사태입니다. 2025년 3월 공개된 이 사건은 7년간 임직원 30명이 공모한 구조적 비위 사례로, 김성태 당시 행장의 대국민 사과와 정순섭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IBK쇄신위원회 발족을 촉발하였습니다. 16개 쇠신 과제 중 13개가 이행되었으나 잔여 과제 처리와 내부통제 재구축은 장민영 행장 체제에서도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디스커버리펀드 80% 배상 결정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년 4월 공통가중비율을 10%p 상향하면서 IBK기업은행의 책임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평판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켰습니다. 셋째, 건전성 리스크입니다. 연체율이 시중은행 평균의 약 2배에 달하고 6,000억 원 규모 부실채권 매각이 진행되면서, 중기 부실 위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넷째, 노사 갈등입니다. 총액인건비 폐지와 미지급 수당 830억 원 합의 과정에서 장민영 행장이 22일간 출근저지를 겪은 사례는 IBK 내부 노조의 영향력과 향후 경영 의사결정의 마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인터넷전문은행의 SME 영역 침투 가능성도 잠재 리스크에 포함됩니다. 부당대출 사태와 디스커버리펀드 사건은 모두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재발 가능성을 낮춰야 하는 영역이며, 디지털 직군이 책임지는 보안과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3-7. 종합적 평가

IBK기업은행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면서도 동시에 4~5가지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회사이며, 장민영 행장 체제는 이 양면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디지털과 IT 영역은 그 해결의 주요 도구이자 동시에 새로운 위험원(예: 망분리 완화로 인한 보안 위험 증가)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며, 이러한 양면성은 IBK 디지털·IT 직군의 업무 우선순위 결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향후 5년간 IBK의 사업 모델은 정책 금융 사업자,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 AI 기반 금융기업이라는 세 정체성의 결합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진화의 성공 여부가 그룹의 시장가치와 정책적 영향력 모두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4장: 인재상/조직문화

### 4-1. 공식 인재상의 신·구 변화와 해석

IBK기업은행의 현행 핵심가치는 목표가치 「고객과 함께」, 생활가치 「신뢰와 책임 / 열정과 혁신 / 소통과 팀워크」로 정리됩니다. 이는 이전 버전의 「고객의 행복 / 신뢰와 책임 / 창조적 열정 / 최강의 팀워크」에서 일부 표현이 다듬어진 것이며, 골격은 유지되었습니다. 채용 사이트에서는 5인재상으로 「세계인 / 책임인 / 창조인 / 도전인 / 전문인」이 별도로 운용되고 있어, 핵심가치가 임직원 일반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라면 5인재상은 채용 단계 평가 기준에 가깝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캐치프레이즈는 "꿈꾸고 도전하는 너를 위한 IBK"로 설정되어 있으며, 브랜드 비전은 2022년 윤종원 행장 시기 선포된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고, 4대 브랜드 가치는 신뢰, 공감, 실력, 혁신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체계가 디지털과 IT 직군에 적용되는 방식은 "혁신과 실력 = 기술 전문성", "신뢰와 책임 = 정보보안과 내부통제", "공감 = 사업부서와의 협업과 통역" 등으로 매핑됩니다. 윤종원 행장 시기 선포된 비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IBK의 비전 일관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장민영 체제에서 추가될 새로운 디지털 비전 키워드가 어떻게 결합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4-2. 국책은행 특유의 조직 문화

##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디지털/IT

잡플래닛 평점은 3.8(리뷰 1,535건)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며, 대표적 평가는 "은행권 최고의 워라밸이었으나 공공의 한계로 디지털에서 뒤쳐진 회사"로 요약됩니다. 강점으로 꼽히는 항목은 고용안정성, 워라밸, 중소기업 동반 사명감, 공공성이며, 약점으로 지적되는 항목은 수직적 의사결정, 보수적 의사결정 속도, 디지털 후행성입니다. 본점은 서울 을지로 79에 위치하고 있으며, IT 핵심 인프라는 용인 수지IT센터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IT그룹의 기획과 개발 부서가 본점으로 이전하면서 사업부서와 IT 부서의 물리적 거리가 좁혀졌고, 이는 디지털 의사결정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적 조치였습니다. 국책은행 특유의 보수성은 디지털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책금융 사업자의 신뢰성 유지에 기여하는 양면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조직 문화 측면에서 IBK는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단기 성과주의보다 중장기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디지털 프로젝트 의사결정에서도 빠른 반복과 실험보다 충분한 검증과 단계적 확산을 선호하는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 4-3. 노조와 정책금융 압력의 이중 변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BK기업은행지부는 한국 금융권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노조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882억 원 부당대출 사태 이후 노조는 경영진 사퇴, 부당지시자 엄벌, 면책제도 정비, 가산점제도 폐지, 중기와 창업, 기술금융 KPI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강한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2026년 초 장민영 신임 행장에 대한 22일간의 출근저지 끝에 미지급 수당 830억 원 정상화로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IBK 내부에서 노조와 경영진의 협상력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이자놀이가 아닌 생산적 금융" 기조는 KPI 구조에 정책 지표(중기, 창업, ESG, 생산적 금융)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과 IT 직군의 KPI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시스템 가용성, 사용자 만족도와 같은 IT 고유 지표 외에도, 정책 자금 집행 시스템의 신속성과 정확성, 중기 사용자 디지털 채널 활성화 등이 평가 항목으로 추가되는 흐름입니다. 노조 영향력이 강한 조직 환경은 디지털 도구 도입 시 인력 대체 우려가 한층 민감하게 다뤄지는 결과로 이어지며, AI 도입 의사결정에서도 인력 보완형 모델이 인력 대체형 모델보다 선호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 4-4. 디지털 본부 위상 강화 — 조직 시그널

2024년 상반기 데이터본부 신설, 하반기 IT운영본부장(정의선)과 IT개발본부장(윤인지) 분리 운영,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직책 신설(박병삼), 디지털추진팀 신설, 그리고 2026년 1월 정기 인사에서 여성 부행장 4명(역대 최대) 발탁이라는 일련의 조직 변화는 IT, 디지털, 데이터, 정보보호의 네 영역이 분권화되고 전문화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직 시그널은 IBK 내부에서 디지털과 IT 직군의 위상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2026년 4월 21일 발주된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는 한층 더 큰 규모의 조직 재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래 영업점과 본부 사업부 중심의 인사 우대권 구조에서 디지털과 데이터 본부가 핵심 자리로 편입되는 흐름은 IBK가 단일한 정책금융 사업자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본부의 위상이 상승할수록 디지털과 IT 직군의 의사결정 권한과 자원 배분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 인재가 IBK에서 경력을 형성하는 데에 우호적인 환경 변화로 작동합니다.

### 4-5. 디지털·IT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1 — 융합 역량과 가교 역할

첫째 특성은 금융 도메인 지식과 IT 기술의 융합 역량입니다. 코딩 능력만으로는 IBK의 디지털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렵고, 여신, 결제, 리스크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기술 언어로 옮길 수 있는 Bilingual 인재가 선호됩니다. 둘째 특성은 레거시(메인프레임과 계정계)와 신기술(클라우드와 AI) 사이의 가교 역할입니다. IBK는 130여 개 레거시 시스템과 차세대 코어뱅킹을 병행 운영하고 있어, 양쪽 언어를 모두 다룰 수 있는 통역가형 인재가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가교 역할은 차세대 후속(포스트차세대) 프로젝트에서 그 가치가 한층 부

##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디지털/IT

---

각되며, 단일 기술 스택에 정통한 인재보다 종단 간(end-to-end) 흐름을 이해하는 인재가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융합 역량은 학력으로 입증되기보다 실제 프로젝트 경험과 결과물로 드러나는 경향이 강하며, 디지털과 IT 직군 채용 단계에서 학력 기준 외의 경험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4-6. 디지털·IT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2 — 규제 리터러시와 협업

셋째 특성은 규제 리터러시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망분리, 금융보안원 점검, 전자금융사고 보고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IBK의 디지털 프로젝트는 첫 단추부터 어긋납니다. 단일 PoC를 수행하더라도 보안성 심의, CISO 승인, 감사부서 검증의 절차가 동반되며, 이러한 규제 환경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넷째 특성은 사업부서와 영업점과의 협업 능력입니다. 본점과 730여 개 지점 네트워크, 본부 사업부와의 요구사항 번역 능력은 IBK 디지털 조직에서 핵심 평가 항목입니다. 사업부서가 모호하게 던지는 요구를 측정 가능한 IT 요건으로 변환하고, 그 결과물을 다시 영업점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풀어내는 역량은 단일 기술 스킬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규제 리터러시와 협업 능력은 둘 다 입사 이후 학습으로 보완 가능한 영역이지만, 입사 시점에 일정 수준의 기초 이해가 있는 인재가 빠르게 적응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4-7. 디지털·IT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3 — 보안 마인드셋과 학습 의지

다섯째 특성은 보안과 안정성 마인드셋입니다. 882억 원 부당대출 사태 이후 IBK 내부에서 내부통제와 정보보안은 모든 의사결정의 첫 번째 게이트로 격상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직군의 일상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시스템 가용성, 데이터 무결성, 사고 대응 속도, 변경관리 절차 준수 등이 평가의 핵심 항목으로 자리잡았고, 신기능 도입 시에도 보안성 검토를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특성은 학습 의지와 변화 적응력입니다. 망분리 완화, 생성형 AI 본격 도입, 클라우드 전환, 디지털 자산 대응 등 IBK가 향후 3년간 직면할 변화의 폭은 매우 크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도구와 방법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학습 역량이 요구됩니다. 학습 역량은 자격증이나 학위로 입증되기보다, 새로운 도구를 다루어본 경험과 그 결과를 정리해본 이력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안 마인드셋과 학습 의지가 결합될 때 신규 디지털 도구의 빠른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이 동시에 가능해지며, 이는 IBK가 추구하는 차별화 디지털 전략의 인적 토대가 됩니다.

### 4-8. 종합 — IBK 인재상의 통합 해석

이상의 6가지 인재 특성은 "기술 전문성 + 금융 도메인 + 규제 이해 + 협업 능력 + 보안 마인드 + 학습 의지"의 결합으로 정리됩니다. 이는 IBK의 핵심가치 「신뢰와 책임 / 열정과 혁신 / 소통과 팀워크」가 디지털 직군에 적용된 구체적 형태이며, 동시에 한국 금융권 디지털 직군이 공통으로 요구받는 역량의 표준 묶음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IBK가 다른 시중은행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중소기업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정책금융이라는 공공성에 대한 책임감"이 추가된다는 점이며, 이 두 항목은 자신만의 경험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때 IBK 디지털 직군에 적합한 인재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합적으로 IBK의 인재상은 첨단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공공 금융기관의 책임감이 균형을 이루는 인물상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균형은 한 가지 자질만 강조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시중은행과의 차별화 지점으로 작동합니다.

---

## 5장: 직무 분석

### 5-1. 채용 트랙의 이원화 — 디지털과 IT의 차이

2026년 상반기 채용은 총 160명 규모로, 금융일반 130명, 디지털 15명, IT 15명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디지털과 IT 두 트랙은 명확히 분리됩니다. 디지털 분야는 "디지털 신기술의 이해, 디지털 서비스 기획 경험, 빅데이터

##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디지털/IT

와 AI 등 데이터 분석과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로 정의되며, 코딩테스트는 데이터 사이언스(DS) 영역에서 Python 또는 R로 진행되고, 필기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AI 모델링, 블록체인, 시사로 구성됩니다. IT 분야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등 IT 시스템의 이해, 정보보호 운영과 관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역량을 갖춘 인재"로 정의되며, 코딩테스트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C, C++, Java, Python3, MySQL, Oracle 중 선택하여 진행되고, 필기는 알고리즘과 시사로 구성됩니다. 석사 학위는 10%, 박사 학위는 15%의 가점이 적용되며, 우대 자격증은 ADP(데이터분석전문가), CISA(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CISSP(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SQLP(SQL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트랙 이원화는 IBK가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과 시스템 운영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두 트랙 사이의 협업이 일상의 핵심 업무가 됩니다. 디지털 트랙은 데이터본부와 디지털혁신부에 주로 배치되는 흐름이고, IT 트랙은 IT운영본부와 IT개발본부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5-2. 시간축으로 본 직무의 일상 — 일·월·분기 단위

일 단위 업무는 코어뱅킹, 채널, 보안 모니터링과 장애 대응, 사업부서와 영업점 요청 대응, 코드 리뷰, 정기 변경관리(EMR) 처리로 구성됩니다. 월 단위 업무는 정기 배포, 보안 점검, 외부 감사와 금감원 점검 대응, 주요 KPI(시스템 가용성, SLA, MAU, 신청 성공률) 리포팅을 포함합니다. 분기 단위와 반기 단위에서는 차세대 사업과 리빌딩 프로젝트의 산출물 검증, 모의해킹과 BCP(업무연속성계획) 훈련, 신규 핀테크 협업 PoC가 진행됩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주말 야간 배치 결과 리뷰와 영업점 장애 보고서 검토가 일과의 시작이며,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사업부서 미팅, 외부 벤더 협업, 신규 요건 분석이 주를 이루고, 금요일에는 다음 주 배포 점검과 서비스 안정성 리뷰가 우선순위에 놓입니다. 이러한 주간 리듬은 IT 운영의 보편적 패턴을 따르되, IBK 특유의 정책자금 집행 일정(분기 말 자금 공급 마감 등)이 추가로 영향을 미칩니다. 분기 말이 가까워지면 정책자금 집행 시스템과 여신 시스템의 부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며, 디지털 직군은 이 시기에 시스템 안정성 모니터링과 용량 산정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합니다.

### 5-3. 시간축으로 본 직무의 일상 — 연 단위 마일스톤

연 단위 업무로는 장기 로드맵의 마일스톤 관리가 핵심을 이룹니다. 클라우드 5개년 로드맵, 디지털뱅킹 3개년 리빌딩(385억 원), 차세대 후속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분기 단위의 산출물 검증과 연간 단위의 회계 마감, 금감원 종합검사 대응, 정보보호공시 작성이 추가됩니다. 매년 4월에는 전년도 결산 발표와 함께 임원 인사 시즌이 있고, 7월과 1월에는 정기 인사가 있어 조직 단위의 변화에 적응하는 일정도 함께 운용됩니다. 연 단위에서 가장 큰 부담은 금감원 종합검사이며, 디지털과 IT 직군은 시스템 운영 자료, 변경관리 이력, 사고 보고서, 보안 점검 결과 등을 종합 정리하여 검사 자료로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기 일정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장애 대응이나 외부 사이버 공격 대응은 디지털과 IT 직군의 업무 강도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변수입니다. 또한 신규 행장 취임 직후에는 행장 비전 발표 자료 준비와 시스템 시연, 디지털 전략 보고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2026년의 경우 4월 발주된 조직개편 컨설팅 결과 발표와 하반기 조직 개편이 추가 일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5-4. 디지털·IT 세부 도메인 7가지 영역 (1) — 코어, 채널, AI

첫째 영역은 코어뱅킹 시스템 운영과 재구축입니다. 메인프레임과 UNIX 환경이 혼재되어 있으며, 6대 프로그램 17개 프로젝트로 구성된 차세대 후속(포스트차세대) 사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둘째 영역은 디지털 채널 기획과 개발입니다. i-ONE Bank 4종(개인용, 기업용, 미니, Global 15개 언어)이 운영되고 있으며, 「디지털뱅킹 리빌딩 1단계」 사업이 385억 원 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셋째 영역은 AI와 데이터 영역으로, IBK GPT(자체 개발 RAG 기반 LLM 활용), IBK바로(생성형 AI 음성봇), 상담지원AI, AI 신기술평가시스템(빅데이터와 미래성장모형),

##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디지털/IT

데이터본부와 빅데이터센터의 AI&Tech팀이 핵심 조직입니다. 이 세 영역은 IBK 디지털 전략의 가장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되는 곳이며, 채용 시에도 가장 많은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코어뱅킹 영역은 IBK시스템 자회사와의 협업이 일상화된 영역이고, 채널 영역은 외부 디자인 에이전시와 UX 컨설팅이 결합되며, AI 영역은 KAIST 등 학계와 외부 AI 사업자와의 협업이 활발한 영역입니다.

### 5-5. 디지털·IT 세부 도메인 7가지 영역 (2) — 보안, 인프라, 협업, 블록체인

넷째 영역은 정보보안입니다. CISO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며, 「i-ONE 가드」(AI 기반 피싱과 악성앱 탐지, 은행권 최초 도입)가 대표 결과물입니다. 다섯째 영역은 인프라와 클라우드입니다. 하남 IDC 이전 완료, IBK시스템 자체 MSP 전환, 네이버클라우드 기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이 핵심 과제이며, 이 영역은 외부 벤더와의 협업이 가장 활발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영역은 핀테크 협업입니다. IBK창공이 액셀러레이팅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 센터 개소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협업이 본격화되었고, 퀴텐테크놀로지스나 헤움랩스 등과의 협업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영역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입니다. BIS(국제결제은행) 「아고라 프로젝트」에 한국 측 참여 은행으로 이름을 올렸고, NFT 지갑 기능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스테이블코인 본격화에 대비한 TF가 운영 중입니다. 이 4가지 영역은 향후 IBK 디지털 전략의 변화 폭이 가장 큰 영역이며, 신입과 경력 인재 모두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가 가장 많이 열려 있는 영역입니다. 정보보안과 인프라 영역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강하고, 핀테크 협업과 블록체인 영역은 실험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강하기에, 두 흐름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디지털 본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5-6. 이해관계자 맵 — 내부와 외부 동시 협업

내부 이해관계자로는 영업점, 본부 사업부, 리스크관리그룹, 감사본부, 준법감시인, IT그룹(IT운영본부와 IT개발본부), 데이터본부, 디지털혁신부, IBK시스템(SI 자회사)이 있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보안원이 규제 측면에서 핵심이며, 금융결제원이 공동망 운영의 핵심 기관입니다.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주력 사업자이고, AI와 데이터 영역에서는 KAIST 등과 산학 협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IBK창공 입주 스타트업과의 협업, 글로벌 13개국 네트워크와의 시스템 연동 등도 디지털과 IT 직군의 일상 협업 대상입니다. 디지털과 IT 직군은 이 모든 노드를 잇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단일 조직에 갇히지 않는 횡단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동합니다. 외부 협업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대상은 금융보안원과 금감원이며, 점검과 검사, 사고 보고 절차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디지털 직군 업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글로벌 협업에서는 폴란드법인 출범 이후 유럽 시간대와의 동기화 부담이 새로 추가되었고, 향후 EU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충돌 영역에서 디지털과 IT 직군의 역할이 한층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5-7. 필요 역량 — 기술과 지식, 소프트스킬

기술 역량 측면에서는 Java, Python, R, C/C++, SQL, Oracle, MySQL이 기본 스택이며,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NCP(네이버클라우드)가 우선 학습 대상이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AI/ML 영역에서는 RAG, LLM 활용, 미래성장모형 등 IBK 고유 모델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며, 빅데이터 영역에서는 Hadoop, Spark가 보편적으로 활용됩니다. 지식 영역에서는 금융 도메인(여신, 결제, 리스크), 규제(전자금융감독규정, 망분리, 금융보안원), 회계와 재무 기초가 요구됩니다. 소프트스킬 측면에서는 비전공자에게 기술 내용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통역 능력, 문서화 능력, 장애 대응 시 침착함이 핵심으로 평가됩니다. KPI 측면에서는 시스템 가용성과 SLA 충족률, 프로젝트 일정과 예산 준수, 디지털 채널 MAU와 신청 성공률, 단위 비용 효율, 보안 사고 제로 유지, 정책금융 KPI 기여도(중기, 창업, 생산적 금융 부문 KPI 연동)가 핵심 항목으로 운용됩니다. 디지털 트랙은 모델 정확도와 데이터 품질, 비즈니스 임팩트가 추가 KPI로 작동하고, IT 트랙은 시스템 가용성과

##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디지털/IT

변경관리 정합성, 보안 사고 발생 빈도가 핵심 KPI로 작동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5-8. 대표 업무 시나리오 1 — i-ONE Bank 신규 기능 출시

가상의 시나리오 A로 i-ONE Bank의 외국인 비자 연계 신규 기능 출시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외국인 노동자 시장 확대 차원에서 비자 정보 연계 기능을 요청하면, IT개발본부가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설계 산출물을 작성하고, 자회사 IBK시스템이 SI 협업 형태로 개발을 진행합니다. 보안성 심의에서는 외국인 신원 정보의 처리 절차가 점검되며, 이후 금융보안원 점검을 거쳐 단계 배포가 진행됩니다. 출시 후에는 MAU 변화와 신청 성공률, 비자 검증 성공률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정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i-ONE Bank Global 앱(15개 언어 지원)과 결합되어 IBK의 외국인 시장 확대 전략과 연결되며, 디지털 직군의 일상 업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신원 정보는 한국 거주 외국인 부처와의 데이터 연계가 필수이기에 정부 부처와의 API 협업이 추가되며, 이러한 부처 협업은 IBK가 정책금융 사업자라는 위상 덕분에 시중은행보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5-9. 대표 업무 시나리오 2 — AI 여신심사 모델 도입과 SaaS 망분리 예외

가상의 시나리오 B는 AI 여신심사 모델 도입(미래성장모형 활용)입니다. 데이터본부가 데이터셋을 정제하고, AI&Tech팀이 모델을 개발하면서 설명가능 AI(XAI) 요건을 반영합니다. 여신 부서는 백테스트를 수행하면서 기존 심사 결과와의 차이를 분석하고, 리스크관리부서와 감사부서가 검증을 진행합니다. 검증 통과 후 IBK GPT와 신기술평가시스템에 통합하면서 운영 단계로 진입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모델 드리프트 모니터링과 재학습 주기가 설정됩니다. 가상의 시나리오 C는 SaaS 망분리 예외 1호 도입입니다. 2026년 1월 20일 시행세칙 적용 이후 후보 SaaS(생성형 AI 코딩 도구나 상담 도구)를 선정하고, 보안성 심의와 CISO 승인을 거쳐 한정 PoC를 수행한 뒤, 결과 검증이 끝나면 전사 확산을 진행하는 흐름입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디지털 직군의 일상 업무가 단일 기능 구현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 모델, 보안, 규제, 운영의 다섯 갈래가 결합된 복합 작업임을 보여줍니다. AI 여신심사 모델은 모델 개발 자체보다 사후 모니터링과 설명가능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투입되는 영역이며, 이는 한국 금융 AI 도입의 보편적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 5-10. 직무의 통합적 의미

IBK기업은행 디지털과 IT 직무는 "중소기업 데이터라는 한국에서 가장 독점적인 자산을, AI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도구로 다시 풀어내는 자리"로 요약됩니다. 이 두 갈래의 결합은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동일한 형태로 재현되지 않는 IBK 고유의 경력 자산이며, 동시에 정책금융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감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디지털과 IT 직군은 향후 5년간 IBK 전략 변화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AX와 생산적 금융 두 갈래의 사업 기둥이 모두 디지털과 데이터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트랙과 IT 트랙은 서로 다른 역량 묶음을 요구하지만, 두 트랙이 결합되어야 i-ONE Bank 슈퍼앱화, BOX 플랫폼 고도화, IBK GPT 확장, 클라우드 전환과 같은 거대한 전환이 완성되는 구조이기에, 어느 한 트랙만 강화되는 방식이 아니라 두 트랙의 균형 있는 인력 총원과 협업이 IBK 디지털 전략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합니다.

##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IBK기업은행 2025 실적 공식 보도자료  
—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28263>

##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디지털/IT

---

2. IBK 자산 500조 돌파 보도(아시아에이)  
— <https://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681>
3. IBK 3Q25 실적(헤럴드경제)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05222>
4. IBK 3Q25 NIM·연체율(EBN)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4482>
5. 장민영 28대 행장 취임식(아시아에이)  
— <https://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302>
6. 장민영 300조 생산적 금융(더퍼블릭)  
—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94929>
7. 장민영 첫 조직개편 컨설팅(이투데이)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77659>
8. 장민영 프로필(인사이트코리아)  
—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793>
9. 김성태 27대 프로필(비즈니스포스트)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3125](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3125)
10. 김성태 2025 신년사(인더뉴스) — <https://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68102>
11. 882억 부당대출 보도(스마트경제)  
— <https://www.smartf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82>
12. 김성태 대국민 사과(서울신문)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03/26/20250326500054>
13. 디스커버리 80% 배상(스마트경제)  
— <https://www.smartf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72>
14. IBK 폴란드법인 본인가(EBN)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7662>
15. IBK Bank Polska 출범(글로벌이코노믹) —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12/2025121908512353780c8c1c064d\\_1](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12/2025121908512353780c8c1c064d_1)
16. IBK BOX 고도화(전자신문) — <https://www.etnews.com/20240924000296>
17. 법인 공공 마이데이터 첫 도입(이투데이)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49395>
18. AI 신기술평가시스템(전자신문) — <https://www.etnews.com/20260323000244>
19. IBK바로 생성형 AI(이투데이)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32888>
20. 클라우드 MSP IBK시스템 전환(전자신문) — <https://www.etnews.com/20250221000156>
21. IBK GPT 자체개발(PRESS9) — <https://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64402>
22. 디지털뱅크 리빌딩 385억(비코리아)  
— <https://m.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45613>

##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디지털/IT

---

23. IBK캐피탈 2025 실적(한국금융신문)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20516371881178a55064dd1\\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20516371881178a55064dd1_18)
24. 금감원 2025 상반기 은행실적(KDI)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0005>
25. 금융위 망분리 SaaS 시행세칙 — <https://www.fsc.go.kr/no010101/86080>
26. 5대 은행 리그테이블(한국금융신문)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2171654333338237391cf86\\_18](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2171654333338237391cf86_18)
27. 시중은행 디지털 MAU 비교(비바100) —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624500392>
28.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 비중(EBN)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623>
29. McKinsey Global Banking Annual Review 2025  
—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financial-services/our-insights/global-banking-annual-review>
30. McKinsey 생성형 AI 가치 분석 —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financial-services/our-insights/banking-matters/how-banks-can-turn-ais-promise-into-real-impact>
31. IBK 공식 핵심가치  
— <https://www.ibk.co.kr/common/navigation.ibk?linkUrl=/intro/announce/core.jsp&pagelId=IR01040000>
32. IBK 채용사이트 비전·인재상 — [https://ibk.incruit.com/intro/inge\\_ability.html](https://ibk.incruit.com/intro/inge_ability.html)
33. IBK 2026 상반기 채용 프로세스 — [https://ibk.incruit.com/jobinfo/ibk\\_prosess.html](https://ibk.incruit.com/jobinfo/ibk_prosess.html)
34. IBK 채용 FAQ(디지털·IT 차이) — [https://ibk.incruit.com/jobinfo/job\\_faq.html](https://ibk.incruit.com/jobinfo/job_faq.html)
35. IBK 빅데이터센터 AI&Tech팀 인터뷰 — <https://blog.ibk.co.kr/2880>
36. IBK시스템 회사소개 — <https://www.ibkssystem.co.kr/ir/intro>
37. IBK 2026 상반기 신입행원 안내(공식 블로그) — <https://blog.ibk.co.kr/569605>
38. IBK 잡플래닛 리뷰 — <https://www.jobplanet.co.kr/companies/55770/reviews>
39. IBK 디지털 부서 키우기(주간한국)  
—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8379>
40. 데이터본부 신설(인공지능신문) —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6>